

米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우재호** · 김재현***

<目次>

I. 序論	1. 意趣 중시한 尚意書藝
II. 연구 대상 및 범주	2. 二王 존송과 崇晉卑唐
III. 시에 투영된 米芾의 서예 인생	3. 文房四寶에 대한 애착
IV. 書藝詩를 통해 본 米芾의 書藝觀	V. 結論

I. 序論

米芾(1051~1107)은 북송 시기의 인물로 字는 元章, 初名은 黻과 芾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41세 이후로 芾만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號는 鹿門居士, 米襄陽, 米南宮, 米癡 등 20여 개에 이른다.¹⁾ 20여 개에 이르는 호는 그의 다양한 삶의 역정을 잘 드러내준다.

미芾은 북송의 대문호인 蘇軾, 黃庭堅 등과의 교류로도 유명한 북송의 시인이자 문인이며, 뛰어난 서예가 내지 문인화가이기도 하다. 특히 서예

* 이 연구는 202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제1저자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대학원 박사과정: 제2저자

1) 미芾은 평생 동안 別號, 雅號, 室號·軒號·堂號·齋號, 世稱 등을 포함하여 鹿門居士, 米襄陽, 米南宮, 米癡, 中嶽外史, 淨名庵主, 溪堂, 無碍居士, 寶晉齋, 襄陽漫仕, 海嶽外史, 淮陽外史, 鬻熊後人, 火正後人, 米痴, 米老, 米家船, 米家石, 海嶽 등 20여 개의 호를 사용하였다.

에 뛰어났던 미불은 북송 4대가로 일컬어질 만큼 빼어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필법은 八面出鋒하여 駿馬를 탄 듯한 入神의 경지로 상찬되었지만, 그보다 미치광이와 같은 독특하고 기이한 언행으로 대중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²⁾ 그는 타인의 괘시와 압박을 시와 서예로 해소하였는데, 자유로운 성정은 자연스럽게 예술적 성취인 시와 서예에서 발현되었으니,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서예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신 성분의 한계로 지방관으로만 전전한 것은 도리어 미불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유명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세

- 2) 그의 특이한 언행은 《宋史》 권444 〈列傳〉 제203, 〈文苑6〉의 〈米芾傳〉(《二十五史》(全12冊 중 7-8冊), 上海古籍出版社, 1986.12)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화를 보아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知無爲軍의 관직에 제수되어 無爲縣 관청에 큰 기석을 발견하고서는 ‘내가 죽히 절을 올릴만하다.’라 하며 의관을 단정히 하고는 절을 하고 그 기석을 형이라 불렀다. 그의 기이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샀으며 벼슬길을 수차례 험난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미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순탄치 않았을 관직 생활의 일면을 알 수 있다. ‘米癡’이 미불의 대표적 별호가 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면을 두고 미불을 ‘米癡’이라 칭한 것은 아니다. 미불과 교류하였던 黃庭堅(1045~1105)은 자신의 벗인 俞清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불에 대해 “미불이 揚州에 있을 때 翰墨을 즐겼는데 그 명성이 대단하였다. 그의 의관 차림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도와는 달랐다. 일상생활에 말수가 적고 대체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여 사람들이 그를 일러 미치광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의 詩句를 보면 매우 뛰어나니 결코 미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마 세속과 맞지 않아 일부러 격의 없는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따름일 뿐이리라.(米黻元章在揚州, 遊戲翰墨, 聲名籍甚, 其冠帶衣襦, 多不用世法, 起居語默, 略以意行. 人往往謂之狂生, 然觀其詩句合處, 殊不狂, 斯人蓋既不偶於俗, 遂故爲此無町畦之行以驚俗爾.)”고 평하였다.(《山谷題跋》 권1, 《書贈俞清老》: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校注》, 上海遠東出版社, 2011, 25쪽) 이렇듯 ‘癡’은 단순히 인격적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호오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성정과 집착을 말하는 것이다. 米芾의 기이한 언행은 그의 예술적 성취에 앞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곤 하였는데, 이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문헌에도 찾아볼 수 있으니, 李穀(1298~1351)의 〈石間〉 등에는 돌에 절하고(拜石), 돌을 형이라 부르는(石兄) 전고들이 출현한다. 미불에 대한 관심은 그의 기행에 집중되었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예술에 몰입한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신영주, 〈조선의 문헌 속에 그려진 米芾의 몇 가지 형상에 관한 소고〉(《漢文古典研究》 제36輯, 2018), 81~84쪽 참조.

상을 떠들며 평생 서예와 관련된 것을 수집하고 평가하고 배우고자 하였다. 그를 ‘서예가’이자 ‘서예 소장가’, ‘서예 이론가’, ‘서화 감식가’라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서화 소장에 있어서 독보적인 일면을 보여주었으니, 미불이 유명 서화 소장에 얼마나 깊은 집착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그의 여러 가지 일화가 대변해주고 있다.³⁾

미불은 자연스레 시를 통해 자신의 서예에 관한 견해를 남겼는데, 본고에서는 서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미불의 시를 書藝詩로 분류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書藝詩는 시의 압축적이고 다양한 기법 묘사를 통해 서예에 관한 작가의 견해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미불의 시 가운데 서예시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과 범주를 정해보고, 우선 서예시에 투영된 미불의 서예 인생을 간략하게 한 장으로 다루어본 후에, 다음으로 선별한 이 시들을 주제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서예와 관련한 미불의 서론과 서예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미불의 문집 및 서화 관련 저술로는 《山林集》·《寶晉集》·《寶晉山林集拾遺》·《寶晉英光集》·《書史》·《書評》·《海嶽名言》·《海嶽題跋》·《跋秘閣法帖》·《寶章待訪錄》·《評字帖》·《研史》·《畫史》·《方圓庵記》 등 매우 다양한데, 서예 眞跡에 대한 평가, 감식, 주장, 그리고 서예 이론에 관한 본질적인 특성 등에 관해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불은 전대의 유명 서화 수집에 광적으로 집착하였는데, 馬宗霍의 《書林紀事》에 기록된 “미불이 眞州에 있을 때 배에서 蔡攸를 뵈게 되었는데, 채유가 왕희지의 《王略帖》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에 미불이 놀라 감탄하며 그의 그림과 바꿀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채유가 난색을 보이자 미불이 ‘만약 제 말대로 따라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바로 침을 강에 버리고 빠져죽겠습니다.’라 하고는 크게 소리치며 배의 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이에 채유가 마침내 서첩을 주었다. 그러자 미불은 매우 기뻐하였다.(米元章在眞州, 嘗謁蔡攸於舟中, 攸出右軍王略帖示之. 元章驚歎, 求以他畫易之, 攸有難色. 元章曰: “若不見從, 某即投此江死矣.” 因大呼, 據船舷, 船欲墮. 攸遂與之, 乃喜.)”는 일화를 보아도 미불이 유명 서예 진적에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II. 연구 대상 및 범주

書藝詩는 唐代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여, 宋代 왕성하게 창작되었다.⁴⁾ 이는 중국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로 꼽히는 宋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당시 宋의 서예에 대한 각별한 관심들이 서예시 발달에 토양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⁵⁾ 현전하는 미불의 시는 《全宋詩》에 수록된 246수와 기타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 그 가운데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39題 42首이다.⁷⁾ 비견할만한 예로 송 4대 서예가인 蘇

- 4) 서예시의 수량 측면에서 당대의 경우 100여 수, 宋대의 경우 946수 이상이나 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우재호,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中國 唐代 書藝詩》(영남대학교 출판부, 2020.10) 20-21쪽과 우재호, 《宋代 書藝詩 試探》(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88輯, 2021.12), 37-39쪽 참조.
- 5) 太祖의 右文政策의 표방, 科擧制의 확대 등으로 인해 신지식인계층의 士大夫가 등장하여, 문학, 사상, 예술의 영역에서 송대 문화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太宗朝에 이르러 《淳化閣帖》을 발간, 二王의 서예와 帖學이 士人들에게 확산되었으며, 仁宗을 거쳐 徽宗朝 사이 북송 4대 서예가인 蔡襄·蘇軾·黃庭堅·米芾이 등장하여 기존 唐末·五代를 단순히 계승해온 서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新意’의 심미의식을 반영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翰林書畫院 등의 서예 교육의 제도화, 서사도구의 발달은 모두 송대 서예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 李星培, 《北宋時代의 論書과 書作 研究》(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5), 2-14쪽 참조.
- 6) 《全宋詩》 第18冊(北京大學出版社, 1998), 12240-12286쪽. 다른 연구서인 黃正雨·王心裁의 《米芾集》(湖北地方古籍文獻叢書, 湖北教育出版社, 2002)에서는 미불의 시로 250여수를 수록하고 있다. 辜艷紅의 《米芾集》(中國藝術文獻刊叢,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4)도 간행되었으나 이는 구하지 못하였다.
- 7) 王閣祥·傅如明的 《米芾論書詩及其書學思想》(《大學書法》, 2020.2, 135-139쪽)에서는 미불의 서예시를 27題 29首로 열거하면서 6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張毅·于廣杰의 《宋元論書詩全篇》(南開大學出版社, 2017)에서는 미불의 서예시 24題 27首를 단순 열거하고 있고, 蔡顯良의 《宋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179쪽 부록 참조: 이 논문은 人民出版社에서 2013.3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음)에서는 21題 24首를 선정하여 역시 이를 단순 열거하고 있다. 由興波의 《詩法與書法》(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에서는 분류와 열거 없이 34首의 시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연구자마다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蔡顯良(2007)과 張毅·于廣杰의 경우

軾의 경우 2,900여 수 가운데 서예시는 47題 58首⁸⁾, 黃庭堅의 경우 1,967 수 중 45題 50首⁹⁾임을 생각해본다면, 미불의 서예시는 수량은 적지만 그 비율은 송대 시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미불이 저술한 다양한 서예 관련 저술과 더불어 고려해보았을 때, 미불의 서예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만하다.¹⁰⁾ 이들 선별한 시를 일련번호를 부

는 〈筆〉, 〈墨〉, 〈紙〉, 〈硯〉 등 문방사보 관련한 시를 선별하지 않았으며, 由興波(2007)와 더불어 帖을 贊한 서예시 일부는 누락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본고에서는 〈硯山〉, 〈李巖帖贊〉, 〈唐文皇手詔贊〉, 〈除書學博士時宰〉 등을 추가하여 총 39題 42首로 선정하였다. 〈除書學博士時宰〉는 미불이 崇寧 3년(1104년) 宰相 蔡京의 추천으로 書學博士를 제수 받고 쓴 시인데,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詩題로 보았을 때, 서예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 내용은 미불 자신이 서학박사로 제수 받기까지의 역정, 소회, 궁궐의 모습과 추천자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시로, 미불 서예의 뛰어난 명성이 결국에는 서학박사로 취임하게 하였다는 미불 서예 인생의 역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拜書學博士作〉이란 시 역시 서예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진 않지만 앞의 시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소회를 읊은 시이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詩題와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미불의 삶을 고려하여 서예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광의적으로 서예시로 분류하였다.

- 8) 禹在鎬,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71輯, 2016.04), 8쪽 참조.
- 9) 禹在鎬,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69輯, 2015.08), 61쪽 참조.
- 10) 蔡顯良은 송대에 論書詩 5首 이상을 남긴 작가를 조사하여 총 32명을 선별하였는데, 그 중 北宋 시기에 속하는 시인은 모두 19인으로, 林逋 6首, 夏竦 5首, 梅堯臣 18首, 歐陽修 6首, 韓琦 9首, 邵雍 6首, 劉敞 6首, 王安石 5首, 強至 6首, 郭祥正 10首, 蘇軾 23首, 蘇轍 5首, 李之儀 6首, 黃庭堅 33首, 米芾 21題 24首, 陳師道 7首, 李廌 5首, 周紫芝 7首, 李綱 5首 등이다. 南宋의 경우는 王十朋 7首, 陸游 30首, 范成大 5首, 楊萬里 16首, 許及之 7首, 樓钥 11首, 袁說友 8首, 趙蕃 14首, 岳珂 125首, 劉克莊 9首, 林希逸 5首, 方岳 6首, 方回 20首 등 13인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미불의 서예시 21제 24수를 꼽고 있는데, 문방사보를 읊은 시 등의 포함 여부에서 본고와는 시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주목할 점은 송대 32명의 작가 가운데 미불은 蘇軾, 黃庭堅, 陸游, 岳珂 다음으로 많은 서예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蔡顯良, 《宋代論書詩研究》(앞의 논문, 2007), 43쪽 및 부록 참조. 張毅·于廣杰의 《宋元論書詩全篇》(앞의 책, 2017)에서도 24제 27수를 열거하여 시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해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¹¹⁾

〈米芾 書藝詩 一覽表〉

	詩 題	全宋詩 권수와 쪽	收錄原文	詩形	비고
1	自漣漪寄薛紹彭	卷1075 12240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서예인생
2	寄薛紹彭	卷1075 12241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論書
3	寄題薛紹彭新收錢氏子敬帖	卷1075 12241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五古	二王
4	硯越竹學書作詩寄薛紹彭劉涇	卷1075 12241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문방사보
5	劉涇收得子鸞字帖云是右軍余 恐是陳子鸞薛紹彭亦云六朝書 又得像余時在漣漪答以詩云	卷1075 12241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二王
6	劉涇新收唐絹本蘭亭作詩詢之	卷1075 12242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二王
7	題蘇中令家故物薛稷鶴	卷1075 12242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서예인생
8~ 10	題子敬范新婦唐摹帖 三首	卷1075 12242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二王
11	題永徽中所撫蘭亭叙	卷1075 12245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二王

11) 본고에서 분류 열거한 시들은 《全宋詩》(앞의 책)에 수록된 시를 기본 텍스트로 추출하여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미불의 서예시는 蔡顯良의 《宋代論書詩研究》(앞의 논문, 2007)와 張毅·于廣杰의 《宋元論書詩全篇》(앞의 책, 2017)에서도 추출 열거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두 책을 기본적으로 참고하면서 四庫全書(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와 《米芾集》(湖北教育出版社, 2002) 등 기타 전적에 있는 미불 서예시를 추가하였다. 《全宋詩》에 수록된 시와 四庫全書 《寶晉英光集》에 수록된 시는 편집 순서와 시수, 그리고 시의 제목 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全宋詩》의 수록 순서와 원문을 따랐다. 《全宋詩》에 수록되지 않은 시는 원전 출처를 별도로 기록하였다.

	詩 題	全宋詩 권수와 쪽	收錄原文	詩形	비고
12	太師行寄王太史彥舟	卷1075 12245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品書
13	硯山 ¹²⁾	卷1075 12246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五古	문방사보
14	答紹彭書來論晉帖誤字	卷1075 12248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五古	二王,論書
15	題麟鳳碑	卷1075 12248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律	書體
16	除書學博士呈時宰	卷1075 12251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律	서예인생
17	雜咏 ¹³⁾ 三首 중 其三	卷1075 12255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五絶	문방사보
18	題所得蔣氏帖	卷1075 12256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五絶	서예인생
19	答薛紹彭寄書	卷1075 12256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서예인생
20	答劉涇書	卷1075 12256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絶	서예인생
21	智衲草書	卷1075 12258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論書
22	攬秀亭	卷1075 12259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古	二王
23	奉詔書御屏	卷1075 12258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五絶	御書
24	筆	卷1075 12261쪽	《寶晉山林集 拾遺》 卷2	七絶	문방사보
25	墨	上同	上同	七絶	문방사보
26	紙	上同	上同	七絶	문방사보

12) 같은 제목의 다른 시 〈研山詩〉가 권1076(12270쪽)에 수록되어 있다.

13) 같은 제목의 시가 권1075(12260쪽)와 권1077(12278쪽)에도 각각 더 수록되어 있으나, 이 시들은 서예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詩 題	全宋詩 권수와 쪽	收錄原文	詩形	비고
27	硯	上同	上同	七絶	문방사보
28	王略帖贊	卷1075 12264쪽	《寶晉山林集 拾遺》卷4	七律	二王
29	王獻之蘇氏寶帖贊	卷1075 12265쪽	《寶晉山林集 拾遺》卷4	三古	二王
30	王右軍穉恭帖贊	卷1075 12265쪽	《寶晉山林集 拾遺》卷4	三古	二王
31	書法贊	卷1075 12265쪽	《寶晉山林集 拾遺》卷4	三古	論書
32	龍眞行爲天章待制林公跋書云 秘府右軍書一卷有一龍形眞字 印故作	卷1076 12268쪽	《寶晉英光 集》卷3	七古	二王
33	拜書學博士作	卷1076 12270쪽	《寶晉英光 集》卷3	七絶	서예인생
34	題李伯時山陰圖許元度王逸少	卷1078 12283쪽	周密 《雲烟 過眼錄》卷1	七絶	品書
35	謝安石支道林四像 二首			五古	
36	題越人王修竹所藏雪竇禪師眞 迹贊	卷1078 12284쪽	鮮于樞 《困學齋雜錄》	七絶	書畫品評
37	題定武蘭亭古本	卷1078 12284쪽	卞永譽 《式古堂書畫 彙考》卷3	七絶	二王
38	李邕帖贊		《寶晉英光 集》卷6	四古	李邕
39	王謝眞蹟贊		《寶晉英光 集》卷6	四古	晉帖
40	唐文皇手詔贊		《寶晉英光 集》卷6	四古	御書
41	歐陽詢度尚庾亮帖贊		《寶晉英光 集》卷6	四古	歐陽詢
42	褚摹右軍蘭亭燕集序贊		《寶晉英光 集》卷6	四古	二王

위에서 열거한 미불의 서예시 42수를 주제와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특정 서예가를 평하며 자신의 서예에 관한 신념과 이론을 주장하는 시들은 ‘서예 이론’ 혹은 ‘서예가 품평’의 유형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작품들이 다수 보였다. 그러나 시제나 내용에 특정 서예가나 작품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를 평가한 경우는 대체로 ‘서예가 품평’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예 이론’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도구인 ‘문방사보’를 읊은 시들은 詠物詩로 볼 수 있겠으나, 서예와 문방사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宋代 서사도구의 발달로 사대부가 귀한 문방사보를 수집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고, 특히 미불의 문방사보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생각해 볼 때, 서예시에 포함시켜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순히 문방사보를 언급한 경우는 서예시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문방사보를 언급하며 자신의 서예관과 심미관 등을 드러내는 시들은 서예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를 통해 미불의 서예 인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면 역시 서예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타고난 성격으로 인해 평생 광적으로 서예를 애호했던 미불의 서예 인생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다루어보고, 다음으로 미불의 서예시를 意趣를 중시한 尚意 書藝와 學書의 방법, 서예가와 서첩 등에 관한 품평 중 二王에 대한 존숭과 崇晉卑唐의 서예관, 서사도구인 문방사보에 대한 애착과 사랑 등 크게 세 소절로 나누어 미불의 서예관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14) 서예시로 분류한 이상의 42首에서 詩人 미불이 전편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의 書藝觀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書藝家 미불이 詩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서예관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어떤 점에서는 내용에 따른 서예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먼저 서예시에 보이는 미불의 서예 인생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후, 미불의 서예관을 주제와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Ⅲ. 서예시에 투영된 米芾의 서예 인생

미불은 평생토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서예를 학습하였고 또 훌륭한 서예 작품 수집에 천착해왔는데, 이는 蘇軾의 <미불이 지은 이왕의 글씨 발미시에 차운하다. 두 수(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중 둘째 수에서 “미불이 글씨를 쓰면 하루에 천 장을 쓰는데, 평생토록 홀로 각고하여 누구와 아름다움 다투나.(元章作書日千紙, 平生自苦誰與美.)”라고 읊은 구절에서도 그 일단이 잘 드러나 있다. 소식은 그의 서예에 대한 노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비단 주머니 옥 두루마리를 끊임없이 가져오고, 찬연하게 진본을 탈취함을 최상의 지혜라 여기는 듯.(錦囊玉軸來無趾, 粲然奪真疑聖智.)”이라고 평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명품 서화를 수집하고자 하는 미불의 습성 또한 꾸짖고 있다.¹⁵⁾ 소식의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미불의 學問은 蔡襄만 못하고, 文章은 蘇軾만 못하며, 詩歌는 黃庭堅만 못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예에 있어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송대 4대서예가로 명명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⁶⁾

미불은 자신의 서예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거의 병적인 서예벽이 되었고, 그 병이 끝수에까지 미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자신의 시에서 토로하였다.

.....

牡丹不語人能醉,
墨光颯勝朱鉛媚.
與身俱生無術治,
又染膏肓劉巨濟.

.....

모란은 말이 없어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취하듯,
먹빛은 연분홍 분을 바른 여인의 교태보다 더 좋구나.
이내 몸에 타고난 성정 또한 치료할 도리가 없는데,
벗 유경 또한 이 병이 고향에까지 미쳐 고칠 수 없네.

15) 禹在鎬,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71輯, 2016.4), 20쪽 참조.

16) 蔡顯良, <宋代論書詩研究>(앞의 논문, 2007), 114쪽 참조.

이 시는 <龍眞行. 天章閣待制 林公을 위한 발문의 글에서 “비부에 왕희지의 글씨 한 권이 있는데 용 모양의 진서 글씨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였기에 이에 짓다(龍眞行爲天章待制林公跋書云秘府右軍書一卷有一龍形眞字印故作)>라는 긴 제목의 시이다. 먹빛이 연분홍 분을 바른 여인의 아양보다 더 좋다고 하여 이러한 기호는 미불 자신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정임을 말하고 있는데, 가식 없는 직설적인 표현은 그의 서예에 대한 애호와 자부심 그리고 주체적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모란은 말이 없어도 사람들을 유혹할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듯이 먹빛으로 代喩한 서예 예술에 대한 애착은 나의 타고난 천성이라 고칠 수 없는 병인 듯 고향에까지 깊숙이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구의 劉巨濟는 미불과 예술을 함께 논했던 벗 劉涇(字가 巨濟)으로, 유경 또한 자신과 같은 예술적 성격과 취향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⁷⁾

다음의 <얻은 장씨 서첩에 제하다(題所得蔣氏帖)>라는 시 또한 그러한데, 탁상의 붓과 창가에 놓인 먹 등 문방사보를 언급하며 세속의 공명 대신 내면의 眞趣를 쫓는 예술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裴幾延毛子,	비자나무 탁상에 붓이 늘어져 있고,
明窗館墨卿.	밝은 창가에는 먹이 놓여 있네.
功名皆一戲,	공명은 모두 하나의 놀이일 뿐인데,
未覺負平生.	나도 모르게 평생 깊어지고 있었네.

이 시에서 말하는 蔣氏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상에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功名과 名利라는 것도 하나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평생토록 이러한 공명과 명리를 쫓았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내면에는 또 다른 하나의 유희인 서예 예술을 지향했음을 실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시 <題所

17) 劉涇 역시 이 시에 화답하여 <미불의 용진행에 화답하다(和米元章龍眞行)>라는 시를 남기고 있다.

得蔣氏帖》을 포함하여 미불의 서예시에서는 ‘하나의 놀이’로 해석되는 ‘一戲’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소지맹 집안에서 소장한 설직의 두 마리 학 그림에 제함(題蘇之孟家薛稷二鶴)>이란 시¹⁸⁾의 “악취 나고 더러운 공명이란 모두 하나의 유희인데(臭穢功名皆一戲)”라는 구절, <龍眞行. 天章閣待制 林公을 위한 발문의 글에서 ‘비부에 왕희지의 글씨 한 권이 있는데 용 모양의 진서 글씨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였기에 이에 짓다(龍眞行爲天章待制林公跋書云秘府右軍書一卷有一龍形眞字印故作)>라는 시의 “늘그막에 공명을 얻어 하나의 유희에 귀의하였네(晚薄功名歸一戲)”라는 구절, <薛紹彭이 편지를 보내와 진나라 서첩에서의 오자를 논한 것에 답하다(答紹彭書來論管帖誤字)>라는 시의 “총괄하자면 모두 하나의 놀이인데(要之皆一戲)”라는 구절과 “붓 잡고 쓰는 것 하나의 놀이처럼 공허하네(放筆一戲空)”라는 구절 등이다. 여기서 ‘一戲’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먼저 功名을 하나의 놀이로 해석, 진정한 意趣와 상반되는 부질없는 헛된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경계해야 할 지양점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다른 하나는 “要之皆一戲”와 “放筆一戲空”에서의 ‘一戲’처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眞趣를 쫓는 서예 예술의 지향점을 나타낸다.¹⁹⁾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一戲’ 모두 세속의 평가에 초탈한 미불 자신의 예술적 의지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담고 있는 의미와 쓰임은 결국 하나로 귀착된다 하겠다.

미불 자신이 평생 천착했던 서예로 인해 명성을 얻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있었다는 功名에의 꿈일 수 있는 중앙 관직인 書學博士

18) 四庫全書 《寶晉英光集》(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2007)과 《米芾集》(앞의 책, 2002) 등에는 이 시의 제목이 <소중령(소지맹) 집안의 옛 물건인 설직의 학 그림에 제함(題蘇中令家故物薛稷鶴)>으로 되어 있다.

19) 후자는 ‘붓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는 ‘一戲’라는 표현을 두고 미불이 글씨 쓰는 자체를 한 판의 놀이로 여겼다면, 이를 미불의 ‘遊戲 美學境’이라 칭하면서 미불의 이 같은 지론 속에는 치열한 공부를 끝낸 자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영오, 《中國名筆家論談》(도서출판 다운샘, 2018,1) 290-291쪽 참조.

를 인생의 만년에 얻게 되었으니, 서예나 중앙 관직은 모두 하나의 유희로서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만년에 지은 다음의 시〈서학박사에 임명되어 현 재상 蔡京에게 올린다(除書學博士呈時宰)〉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平生湖海看青山,	평생 강호에 살며 청산만 바라보다보니,
慣佩峇峇攬轡羶.	중다래끼 차는 게 편하고 말고삐 잡는 것 어렵구나.
曉起初馳朱雀路,	새벽에 일어나 처음으로 주자로 내달리는데,
霜華慚綴紫宸班.	백발성성하여 조정 반열에 오름이 부끄럽네.
百僚卑處瞻丹陛,	백관들이 저 아래서 붉은 어전 우러러보는데,
五色光中望玉顏.	찬연한 오색 광채 속에서 용안을 바라보네.
浪說書名落人世,	서명 하나로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 함부로 말하나,
非公那解徹天關.	공이 아니었다면 어찌 대궐문에 이르렀으리.

이 시는 詩題와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서예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불이 崇寧 2년(1103)과 3년(1104)에 書學博士, 5년(1106)에는 書畫學博士를 지냈다가, 1107년 다시 지방으로 좌천되어 부임지에서 즐하였던 그의 생애를 고려해보면,²⁰⁾ ‘時宰’인 宰相 蔡京의 추천에 의해 발탁되어 書學博士라는 관리 생활의 정점이 인생의 말년에 찾아왔던 것이다. 서학박사라는 관직은 唐代의 제도를 답습하여 宋代에 國子監 아래에 두었는데,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徽宗 때에 다시 두어 서예를 중시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적합했을 관직인 서학박사와 서화학박사에의 임명 사실은 미불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이에 감사하는

20) 그의 관리로서의 삶을 약술하자면, 어머니가 英宗 高皇后의 출산을 도운 공로로 입직하여, 생애 대부분을 지방 하급관리로 전전하면서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부임지를 옮겨 다녔으며, 말년인 徽宗 연간에 이르러 書畫兩學博士(56세), 禮部員外郎(57세) 등 중앙 관직을 맡았다. 그것도 잠시,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다시 지방으로 좌천되어, 1107년 57세를 일기로卒하였다. 그 자신도 신분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분만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沃興華, 《米芾書法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6), 1-3쪽 참조.

심정을 솔직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채경에서 바치는 이 시이다. 이렇듯 평생 지방을 떠돌던 미불이 자신이 평생을 천착해온 서예를 관장하는 서학박사에 임명되어 인정받은 사실을 글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²¹⁾

첫째 연에서 미불은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방 하급 관리를 전전하는 모습을 평생 강호와 청산에 살며 종다래기 익숙하게 옆에 찬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연에서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백발이 성성한 늙은 자신이 마침내 중앙에 나아가자 기쁨과 부끄러운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셋째 연에서 궁궐의 오색찬란한 모습을 보며 기쁨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 연에서는 자신에 대한 세상의 괘시에도 불구하고 서예로 세상에 이름나 결국 당시 재상 채경의 추천으로 입성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울러 기쁨과 자신감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시 전편이 미불의 서예 인생을 간단히 축약해 놓은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불의 태도는 다소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벼루(硯)>라는 시에서 “슬픔과 기쁨, 곤궁함과 편안함은 항상 함께 하니, 깨뜨려 버려도 硯匣은 다시 가져올 수밖에.(悲歡窮泰尋常共, 擲破還須匣取歸).”라고 한 표현을 통해 미불이 세속의 평가를 멀리하고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에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주작대로를 달리는 모습은 서로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를 통해 <언은장씨 서첩에 제하다(題所得蔣氏帖)>에서 “공명은 모두 하나의 놀이일 뿐인데, 나도 모르게 평생 젊어지고 있었네.(功名皆一戲, 未覺負平生.)”라고 읊은 미불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법도 하다. 사실 미불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위에서 인용한 시 외에 여러 글에서 드러난다. 관직 생활, 위정자와 시대적 풍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관직에 대한 공명 심리를 떨치지 못하는데, 미불의 현실적 면모와 고민들을 고스란

21) 이와 유사한 제목의 시 <서학박사에 제배되어 지음(拜書學博士作)>이란 七言絶句가 한 수 더 있는데, 이 시는 다음과 같다. “昔夢浮生定是非, 家山且喜隔年歸. 扁舟又出欄潮間, 出處初心老更違.”

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는 역대 수많은 중국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모순적 태도였다.

Ⅳ. 米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1. 意趣를 중시한 尙意書藝

宋代는 중국 고전문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으니, 詩, 詞, 散文, 小說, 戲曲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발달하고 작품 수, 작가, 표현법 등에서 전대와 구별되는 특색을 보였기 때문이다.²³⁾ 서예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宋代라는 개성적 성격의 문화적 토대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과 서예를 막론하고 이들은 하나의 공통적 특징을 보였으니, 그것은 바로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풍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종래의 기준을 벗어나 새로운 서예의 해석을 시도한 이들이 바로 송대 4대 서예가이며, 그 가운데 미불이 있다.

미불은 자신이 저술한 수많은 전적에서 자신만의 독창적 서예론을 주창하였고, 서예시에서도 직설적인 표현들로 서예의 이론과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설소팽이 편지를 보내와 진나라 서첩에서의 오자를 논한 것에 답하다(答紹彭書來論晉帖誤字)>라는 시 한 수를 보자.

22) 謙讓의 미덕이 몸에 밴 문인이 보기에 미불의 거리낌 없는 행동이나 功名을 쫓는 태도와 직설적 표현의 풍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宋代 ‘古文運動’을 거치고 전통 유학이 통치와 문화의 전범으로 자리 잡고, 시의 효용을 인간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한 ‘詩教’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던 시대적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由興波, 《詩法與書法—宋代書法四大家詩學思想與書法理論比較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133쪽 참조.) 아울러 송대의 劉克莊은 <跋本朝名筆六家·米元章>(《後村先生大全集》 권104)에서 미불의 書와 畫는 높이 평가하였지만, 詩文은 속되고 괴이하다고 낮게 평가하였다. 《米芾集》(앞의 책, 湖北教育出版社, 2002), 210쪽 참조.

23) 이치수, 《송대시학》(역락, 2020), 23-33쪽 참조.

何必識難字,	어찌 誤字를 굳이 식별하려고 하여,
辛苦効揚雄.	고생스럽게 양웅을 본받을 것인가. ²⁴⁾
自古寫字人,	자고로 옛 선인들이 글씨를 쓰다 보면,
用字或不通.	글자 중에 간혹 통하지 않는 것 있음이라.
要之皆一戲,	총괄하자면 이 모두는 하나의 놀이여서,
不當問拙工.	글의 공졸을 따져 묻는 것 마땅치 않다네.
意足我自足,	마음 따르는바 흡족하면 나 자신도 만족하니,
放筆一戲空.	붓 잡고 쓰는 것 하나의 놀이처럼 공허하네.

이 시는 친구 薛紹彭이 旣帖에서 誤字를 발견하고 미불에게 편지를 보내오자 미불이 이에 대해 수답한 것이다. 여기서 미불은 공졸을 따져 묻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여 형식과 기교의 측면보다는 마음을 따르는 바를 좇으면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는 내면적 意趣를 강조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개성과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尚意’의 정신이다. 서예는 본디 字로써 마음과 의도를 전달하는 시각예술이다. 그러나 誤字는 이 전달 과정에서 해석의 오해와 곡해를 초래하고 감상하는 이의 몰입감을 방해할 것인데, 미불은 이보다 서예를 마음을 담아내는 心書, 心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미불은 王羲之〈蘭亭集序〉의 誤字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정자에 모여 체를 올리고 술을 마시며 당시의 興趣 아래 써 내려간 왕희지의 ‘意趣’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미불의 서예에서도 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尚意書藝’로, 일정 공간을 벗어나 변화된 자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唐代 서예가들이 추구했던 일정한 공간 내에서 안정된 자형의 결구를 강조한 ‘尚法書藝’와 다르다.²⁵⁾ 미불이 楷書보다 行書에 능했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행서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또 마지막 구에서는 미불의 구체적 執筆法을 살펴볼 수 있다. ‘放’은 주

24) 이 구절의 ‘効’자는 ‘笑’자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으나, 문맥과 해석상 ‘効’자가 더 자연스러워 이를 택하였다. 이하 시 원문 한자 중 판본상의 이동이 있는 곳이 더러 있지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全宋詩》(앞의 책)를 따랐다.

25) 李星培, 〈北宋時代의 書論과 書作 研究〉(忠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5), 94쪽 참조.

로 ‘놓다’, ‘두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放筆’은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 미불은 〈自敍帖〉에서 “붓을 가볍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비게 된다(把筆輕, 自然手心虛).”고 하였으니,²⁶⁾ 여기서 ‘放’은 붓을 가볍게 잡고 글씨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위적이고 고정된 격식에 매이지 않는 미불의 독창적인 집필법으로 尚意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다음 시 〈지눌의 초서(智衲草書)〉에서도 미불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러한 서예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人愛老張書已顛,
我知醉素心通天。
筆鋒卷起三峽水,
墨色染徧萬壑泉。
興來颯颯吼風雨,
落紙往往翻雲烟。
怒蛟狂虺忽驚走,
滿手黑電爭回旋。
人間一日醉夢覺,
物外萬態涵無邊。
使人壯觀不知己,
脫身直恐凌飛仙。
棄筆爲山儼無苦,
洗墨成池何足數。
其來精絕自凝神,
不在公孫渾脫舞。

사람들은 장옥 초서가 이미 최고라서 좋아하나,
나는 술 취한 회소의 마음이 하늘과 통했음을 알겠네.
필봉은 삼협의 물을 다 말아 올리고,
먹빛은 온갖 골짜기의 샘물을 두루 물들이네.
흥이 일면 급하기가 비바람이 노호하는 듯하고,
종이에 글을 쓰면 왕왕 구름과 연기 일어나네.
노한 교룡과 미친 독사가 갑자기 놀라 달아나고,
손 가득 검은 우레가 다투어 빙빙 회전하네.
인간 세상에서 하루를 꿈에 취했다 깨어나니,
세상 밖의 모든 모습이 끝없이 담겨 있네.
웅대한 경관에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니,
아마도 몸을 벗어던진 하늘 나는 신선인 듯하네.
버린 붓이 산을 이룸에 어찌 고통이 없었으며,
씻은 먹물이 못을 이룸 어찌 다 셀 수 있으리.
그 정묘한 빼어남은 정신의 결집에서 왔으니,
공손대랑이 추는 물아일체의 칼춤에 있지 않다네.

智衲이 누구인지 현재 고찰할 수 없지만, ‘衲’이 승복을 가리키니 지눌은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후 중·만당 시기의 書僧이거나, 혹은 이 시에서 논하고 있는 懷素의 별칭일수도 있을 것이다. 미불이 서예를

26) 《寶晉英光集》 卷8, 원문은 李星培, 위의 논문, 97쪽에서 轉引.

논함에 張旭과 회소의 광초에 대해서는 자못 완곡하게 비평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시에서는 찬상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시는 마땅히 초기의 詩作이기 때문에 후대의 입론과는 어느 정도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구절에서 미불이 심후한 서예의 공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예를 배움에 오로지 정신에 집중하여 “글씨를 배움에는 모름지기 이에 대해 특별한 정취를 얻어야 하며 다른 것은 다 잊어야 비로소 그 오묘한 맛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學書須得趣, 他好俱忘, 乃入妙.)”는 書學 사상과 “마음에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뜻에 따라 글씨를 쓰게 되면, 모두 자연스러움을 얻고 그 고아함을 갖추게 된다(心既貯之, 隨意落筆, 皆得自然, 備其古雅.)”는 尚意의 서론 및 “나의 글씨는 옛 글자를 모은 것이니, 이는 대개 그들의 장점을 취하여 이를 종합해서 완성한 것이다(我書爲集古字, 蓋取諸長處總而成之)”고 하여 옛날의 훌륭한 작품을 널리 배워야 한다는 창작 방법과 상통한다.²⁷⁾ 이는 장욱이나 회소 등이 한 순간의 영감을 존중하여 객관 사물에 의지하여 계발한다는 ‘頓悟’와는 분명히 구별된다.²⁸⁾

미불은 특정 서예가를 평하면서 자신의 서예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예로 다음의 시 〈서예를 찬하다(書法贊)〉를 들 수 있다.

去顏肉,	안진경의 살을 떼어내고,
增楮骨.	저수량의 뼈를 더하네.
發天秀,	천부적 솜씨 발하니,
助神物.	신묘한 물건이 완성되었네.
敢竊議,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지만,
增骨突,	뼈대 한층 더 드러나네.

27) 이상의 인용문은 모두 《海嶽名言》(郭魯鳳 選註, 《中國歷代書論》, 東文選, 2000.7, 121-140쪽 참조)에 수록되어 있음.

28) 楊克炎 選註, 《書法詠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沈陽), 104쪽 참조. 이 시는 우재호, 〈宋代 書藝詩 試探〉(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제88집, 2021.12), 52-53쪽에서도 인용하였다.

미불은 유년시절 唐의 楷書를 위주로 臨摹하기 시작하였는데, 7~8세 무렵에 顏眞卿의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후 柳公權과 歐陽詢의 글씨를 거쳐, 褚遂良의 글씨를 배웠다.²⁹⁾ 여기서 저수량의 글씨를 배운 시기가 가장 길었는데(실제 기간은 2년에 불과), 그 이유는 저수량의 法이 六朝의 서법을 이어받아 그를 통해 晉人의 書法을 배우고자 함이었다.³⁰⁾ 미불은 평생을 옛 사람들의 글자를 集古하는 방식을 통해 學書하고자 하였는데, 결국에는 ‘顏筋柳骨’로 대표되는 唐의 글씨에 한계를 느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심미적 요구에 들어맞는 것이 바로 王羲之 王獻之의 二王으로 대표되는 東晉의 서예였다. 미불은 후기로 갈수록 崇倣卑唐의 서예관과 意趣를 중시하는 서예 심미관을 여러 편의 서예시에서 드러내었다. 특히 二王을 서예 최고의 전범으로 삼아 최고로 존중한다는 서예관을 자주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二王 존숭과 崇倣卑唐

미불을 두고 서예가·서예 감식가·서예 수장가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서예 작품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방사보에 대해 평하는 많은 전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연히 서예가와 서첩 등에 관한 평론이나 품평, 진위 내지 소장 이력 등을 담고 있는 시가 미불 서예시 42수 가운데 26수나 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26수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하는 서예가 내지 서예 작품은 바로 王羲之와 王獻之, 즉 二王과 관련된 것이다. 二王을 주제로 삼거나 일부

29) 米芾, 《寶晉英光集》卷8 〈群玉堂帖〉: “餘初學顏, 七八歲也, 字至大一幅, 寫簡不成, 後見柳而慕緊結, 乃學柳金剛經, 久之, 知出於歐, 乃學歐, 久之, 如印版排算, 乃慕褚而學最久.” 참고로 미불은 《海嶽名言》(郭魯鳳, 위의 책, 122쪽 참조)에서 저수량의 楷書를 혹평한 반면 行書에 대해서는 칭찬하기도 하였는데, 초기와 후대의 입론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30) 郭智恩, 〈米芾 書藝의 意趣美 研究〉(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17쪽 참조.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26수 가운데 14수에 이른다. 따라서 미불 서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二王임을 짐작할 수 있다.³¹⁾ 미불은 30세 전후까지는 唐代 글씨를 임모하였으나, 소식과 교류하면서 그의 권유를 받아 晉人の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미불의 서예시에서는 二王을 제재로 삼거나 찬양하는 등의 언급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³²⁾ 미불의 서예시에서 二王을 서예의 典範으로 삼아 최고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을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二王之前有高古, 왕희지와 왕헌지 이전에 고고함이 있는 작품을,
有志欲購無高費. 구매했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재물이 부족하네.
〈설소팽에게 보내다(寄薛紹彭)〉

雲物龍蛇森動紙, 구름 속 영물인 용과 뱀이 지면에 삼엄하게 움직이니,
父子王家眞濟美. 왕씨 집안 부자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이루었네.
〈당나라 때 모사본 왕헌지 범신부첩에 제하다(題唐摹子敬范新婦帖)〉
三首 中 其二

鸞夸虬引鶴序翔, 난새가 날고 규룡이 끌어 고니가 비상하는 형세인데,
洞天九九通遼陽. 하늘과 맞닿은 팔십 한 글자는 요양 땅까지 통하네.
〈왕략첩에 찬하다(王略帖贊)〉

31) 《寶晉英光集》 卷8 〈群玉堂帖〉: “餘初學顏, 七八歲也, …… 乃慕褚, 而學之最久, 又慕段季轉折肥美, 八面皆全. 久之, 覺段全繹蘭亭, 遂並看法帖, 入晉魏平淡, 棄鍾左而師師宜官劉寬碑是也.” 《海嶽名言》(郭魯鳳, 위의 책, 122쪽 참조)에서 인용.

32) 미불은 평생을 眞蹟이 창작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摹寫本을 수장하고자 하였으며, 二王의 모사본 帖을 얻고 감상을 적은 시, 특히 二王의 《蘭亭敘》 帖을 구하게 되어 감상한 내용을 적은 시제가 많다. 시제에 직접 二王 혹은 《蘭亭敘》를 언급한 시를 열거해보면 〈寄題薛紹彭新收錢氏子敬帖〉, 〈劉涇收得子鸞字帖云是右軍余恐是陳子鸞薛紹彭亦云六朝書又得梁武像余時在漣漪答以詩〉, 〈劉涇新收唐絹本蘭亭作詩詢之〉, 〈題子敬范新婦唐摹帖〉 三首, 〈題永徽中所樞蘭亭叙〉, 〈王略帖贊〉, 〈王獻之蘇氏寶帖贊〉, 〈褚摹右軍蘭亭燕集序贊〉, 〈王右軍禪恭帖贊〉, 〈龍眞行爲天章待制林公跋書云秘府右軍書一卷有一龍形眞字印故作〉, 〈題定武蘭亭古本〉 등이 있다.

藐百川, 會北海. 작은 수많은 시내가, 북해로 모이는 것처럼,
 人那知, 冠千載. 사람들이 어찌 알리오, 천 년토록 으뜸임을.
 <왕헌지 소씨보첩에 찬하다(王獻之蘇氏寶帖贊)>

末下龍跡, 마지막 부분에 용과 같은 흔적 있으니,
 震驚天地. (서체는) 천지를 진동시켜 놀라게 하네.
 <왕씨와 사씨의 진적에 찬하다(王謝眞蹟贊)>

二王 서예를 최고의 전범으로 추켜세운 여러 수의 시 중에서도 <영휘
 년간에 모사한 난정서에 제하다(題永徽中所撫蘭亭叙)>라는 시에서는 왕희
 지의 <蘭亭叙>를 신의 도움으로 창작되어 후세의 전범으로 남겨진 최상의
 서예 작품이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永和九年暮春月,	동진 영화 9년 늦봄에,
內史山陰幽興發.	내사 왕희지가 회계산에서 그윽한 흥취 펼쳐내었네.
羣賢題詠無足珍,	여러 현량들이 읊조린 시도 진귀하기에 부족하여,
叙引抽毫取奇札.	서문 쓴다고 붓을 들어 기이한 서찰을 써내었네.
好之寫來終不如,	그 후 다시 써보았으나 끝내 처음만 못하였으니,
神助留爲後世法.	신의 도움으로 후세의 법을 남기기 위함이었네.
二十八行三百字,	이십팔 행 삼백 이십여 글자 되는 <난정서> ³³⁾ 는,
模寫雖多誰定似	모사 작품 비록 많지만 누가 비슷할 수 있었던가.
昭陵竟發不知歸,	소릉을 마침내 발굴하였으나 종적이 묘연하니,
尚有異形終可倚.	오히려 다른 모사본을 결국 근거로 삼을 수밖에.
彥遠記模不記褚,	모사본에 관한 장언원의 기록에 저수량은 들지 않아,
要錄班班有名氏.	<법서요록>에는 분명히 유명한 분들만 남아 있네.
後生有得苦求高,	후배들이 이를 얻어 애써 고상함을 추구하지만,
俗說紛紛那有是.	속설이 분분하여 무엇이 옳은 지 알 수 없네.

미불은 천하제일의 행서 왕희지의 <蘭亭叙>를 찬양하며 후대인으로서

33) <蘭亭集叙>의 전문은 모두 28행 324자이다.

진적을 확인할 수도 얻을 수도 없자 모사본을 통해서라도 晉人의 古法을 얻고자 하였다.³⁴⁾ 이에 미불은 전국 각지의 소장가들이 수장한 모사본을 찾아 다녔는데, 특히 미불이 모사본에 집착한 것은 자신만의 서예에 대한 學書 이념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진적에서 법을 취하여도 겨우 그 중간을 얻을 뿐이라는 것이 서예 학습의 경험이었으니, 미불은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함을 요구하여 “석각을 보고 글씨를 배워서 안 되는데, 다만 자신의 글씨를 다른 사람에게 새기도록 한 것이므로 이미 자기의 글씨가 아닌 것이다. 그 까닭에 반드시 진적을 보고서 배워야지 의취를 얻을 수 있다(石刻不可學, 但自書使人刻之, 已非己書也. 故必須眞跡觀之, 乃得趣.)”고 하였다.³⁵⁾ 이 때문에 그는 <난정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 원적에 더 가까운 모사본을 선택하기를 희망하였고, 이 永徽本 <난정서> 모사본을 칭찬하는 까닭은 바로 그 시기가 貞觀 시대와 가장 가까워 <난정서>의 본래 형태와 神韻을 가장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³⁶⁾ 이 시의

34) 서예시 이외에 미불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두 330점의 선대 작품을 언급하였는데, 晉나라 명서예가의 진적이나 모본은 85종이며, 그 가운데 17종의 <蘭亭敍> 본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晉代 서예 작품과 특히 王羲之의 <난정서>에 대한 미불의 관심을 알 수 있다. 로타 레더로제 著 정현숙 譯, 《미불과 중국 서예의 고전》(미술문화, 2013), 30-63쪽과 155-258쪽 참조.

35) 《海嶽名言》(郭魯鳳, 앞의 책, 123쪽 참조)

36) 미불은 《寶章待訪錄》(王伯敏·任道斌·胡小偉, 《書學集成(漢-宋)》, 河北美術出版社, 2002.6, 350-362쪽 참조)에서 작품을 직접 감상한 부분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부분으로 나누어 소장자, 작품, 서예가, 재료, 印, 진위 감정, 상태 및 기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평하고 있다. 등장하는 인물은 총 49명이며,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漢(1명), 吳(1명), 晉(23명), 劉宋(4명), 陳(2명), 唐(16명), 五代(1명), 기타(1명)으로 晉·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왕희지가 13회, 왕헌지가 3회 등장하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진위 감정에 있어, 진적, 非眞, 탁본, ○○본 등으로 구분하면서 진적 여부를 상당히 중시하였으며, 진적이 아닐 경우 해당 모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시기의 작품일수록 신뢰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 부분은 판단의 근거가 다소 빈약하여 후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작품과 자료가 帖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비석이나 목판은 眞迹의 意趣를 상실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姜重來, 《米芾의 書藝와 書論에 나타난 美意識 研究》(大田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16), 113-119쪽 참조.

제목에는 “영휘는 정관과의 시간적 차이가 멀지 않아 진적에 가까운 가장 좋은 모사본을 얻을 수 있다(永徽去貞觀不遠, 得眞爲最)”는 自註가 달려 있다.³⁷⁾

이왕에게 경도된 이후에 미불은 특정 서예가들, 특히 唐代의 서예가들을 평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비방과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 표현을 직설적으로 사용하여 품평한 시도 있다. <설소팽에게 보내다(寄薛紹彭)>라는 시 한 수를 보도록 하자.

歐怪褚妍不自持,
猶能半蹈古人規。
公權醜怪惡札祖,
從茲古法蕩無遺。
張顛與柳頗同罪,
鼓吹俗子起亂離。
懷素獨獠小解事,
僅趨平淡如盲醫。
可憐智永研空白,
去本一步呈千媿。
已矣此生爲此困,
有口能談手不隨。
誰云心存乃筆到,
天工自是秘精微。
二王之前有高古,
有志欲購無高貲。
殷勤分語薛紹彭,
散金購取重跋題。

구양순의 기괴함과 저수량의 고음 절로 믿지 못하리니,
오히려 고인들의 법규를 절반만 답습했기 때문이라네.
유공권은 기괴하고 조악한 서찰의 비조가 되었으니,
이로부터 옛날 법은 씻겨버려 남은 것이 없게 되었네.
미친 장욱과 유공권은 자못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속된 이들 선양하여 혼란과 우환을 일으킨 것이라네.
회소 같은 망나니는 일을 잘 알지 못하여,
겨우 평담으로 다가갔으나 장님 의사와 같다네.
가련하구나, 지영선사의 속 파인 절구 같은 벼루여,
근본에서 한 걸음 벗어나 온갖 누추함 드러내네.
그만 돌지어다, 이내 삶은 이처럼 곤궁하여,
입이 있어 말은 하지만 손이 따르지 못하네.
마음이 있으면 붓이 이른다고 누가 말했던가,
조물주가 이로부터 정교하고 미묘함을 숨겼는데.
왕희지와 왕헌지 이전에 고고함이 있는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재물이 부족하네.
은근하게 설소팽과 서로 말을 나누기를,
돈을 분담하여 구매해서는 거듭 발문을 쓴다네.

미불은 서예를 논함에 晉代와 그 이전을 숭상하여 唐代 서예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에서는 당대 특정인의 書法을 비방하고 깎

37) 永徽는 당 高宗의 연호(650~655), 貞觀은 당 太宗의 연호(627~649)이다.

아내리기도 하며 어떤 것은 가혹한 욕설이 있기도 하다. 이 시에 보이는 논지는 그가 초기에 唐의 楷書 위주로 서예를 학습하였으나, 이후 晉代의 二王을 최고 전범으로 삼아 서예 학습을 하였던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는 미불의 비평 철학에 기반한다. 그는 전대 제현들과 당시 사람들의 평론 방법에 대해 크게 비판적이었는데,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 본질 파악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였다.³⁸⁾ 그의 시에서도 공허한 비유나 어려운 典故를 꺼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의 이러한 비평관을 살펴볼 수 있다. 서예에 있어서 二王의 晉代 혹은 그 이전의 古法을 존중하고 대체로 옛 법에만 얽매인 唐代 서예를 낮추는 서예관과 상통한다.³⁹⁾

미불은 너무 꾸며 부자연스럽거나 가식적으로 허장성세하는 태도를 반대하는 기풍과 천진난만하거나 침착 통쾌함을 추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쉽지 않은 것은 그가 감히 자신의 개인적인 결점을 드러내어 “그만 돌지어다, 이내 삶은 이처럼 곤궁하여, 입이 있어 말은 하지만 손이 따르지 못하네(已矣此生爲此困, 有口能談手不隨)”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스스로의 겸손함 내지 눈만 높고 창작 실력은 없다는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38) 미불은 《海嶽名言》(郭魯鳳, 앞의 책, 121쪽 참조)에서 “옛 현인들이 글씨를 논한 글을 보면, 대개 논거 제시가 불명확한데 비유는 기상천외하다. ‘용이 천문을 뛰어넘고 호랑이가 봉긋에 누워 있는 듯하다’와 같은 것은 무슨 말인가. 문장 표현상 아름다움을 추구할수록 법도로부터 점점 멀어져 배우는 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의 논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화려한 언사는 쓰지 않겠다.(歷觀前賢論書, 徵引迂遠, 比況奇巧, 如龍跳天門, 虎臥鳳閣, 是何等語, 或遣辭求工, 去法逾遠, 無益學者, 故我所論, 要在入人, 不爲溢辭.)”라 하였는데, 전인들의 書論들이 교묘하고 비현실적이며 화려한 말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朴世儁, 〈米芾의 〈海嶽名言〉과 그 書藝의 體現〉(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3쪽 참조.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서예시에서도 이러한 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39) 서예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미불은 唐代의 서예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二王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 《海嶽名言》에서는 “이왕의 악찰을 한번 씻어내어 宋나라 황조에게 영원토록 비쳐주겠다.(一洗二王惡札, 照耀皇宋萬古.)”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金善子, 〈米芾의 書藝觀 研究〉(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7-40쪽 참조.

는 점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미불의 서예 품평에 대한 엄격함과 진지함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3. 文房四寶에 대한 애착

문방사보와 관련된 서예시는 <산 모양의 벼루(硯山)>를 포함하여 7首를 꼽을 수 있다. 문방사보와 서예의 불가분의 관계, 宋代 문방사보의 수집 유행과 더불어 미불의 서사도구에 대한 집착 등이 그의 문방사보에 관한 많은 일화와 함께 서예시에서도 표출되어 있으므로 문방사보를 논한 시를 서예시로 구분하여 한 절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미불은 일생을 求書行脚 했을 뿐만 아니라, 紙·筆·墨·硯의 문방사보에 대해 매우 집착하였다. 何蘧(1077~1145)의 《春渚紀聞》에 기록에 의하면 황제의 벼루를 얻고자 무릎을 꿇고 간하자 황제가 이를 윤택하니 춤을 추고 답례하고 옷소매를 먹물로 적신 채 벼루를 안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을 정도이다.⁴⁰⁾ 이는 하나의 일화에 불과하지만, 특기할 점은 그의 집착은 문방사보를 소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분석·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등 단순한 애호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미불은 《硯史》에서 26종의 硯을 기록하고 瑞, 歙의 原石 재료에 대해 상세히 구별하였으며, <用品>·<性品>·<樣品> 장으로 나누어 먹의 갈림과 농도·광택, 벼루의 질과 강도, 역대 벼루의 문양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서사도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또한 갖추고 있었다.

宋代 서예도구의 발달은 科擧制의 정착으로 글을 다루는 문인의 증가, 경제발달, 높은 학구열과 문화적 욕구의 결과로,⁴¹⁾ 南唐과 宋初에 이미 澄

40) 何蘧, 《春渚紀聞》 권7 <米元章遭遇>(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又一日, 上與蔡京論書良岳, 復召芾至, 令書一大屏. 顧左右宣取筆硯, 而上指禦案間端硯, 使就用之. 芾書成, 卽捧硯跪請曰: ‘此硯經賜臣芾濡染, 不堪復以進禦. 取進止.’ 上大笑, 因以賜之. 芾蹈舞以謝, 卽抱負趨出, 餘墨沾漬袍袖而喜見顏色. 上顧蔡京曰: ‘顧名不虛得也.’”

41) 李星培, <北宋時代의 書論과 書作 研究>(앞의 논문, 2005), 43쪽 참조.

心堂紙, 李延珪墨, 諸葛氏筆, 龍尾歛硯을 紙墨筆硯의 최상으로 여겨 ‘文房四寶’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칭해질 정도였다.⁴²⁾ 높은 수준의 서예 성취에 대한 갈망과 전대의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수집하고자 했던 문인들에게 문방사보가 자연스러운 吟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⁴³⁾ 이에 문방사보를 읊은 서예사에서 질, 형태, 제작 등의 단순 외적 특징을 묘사·설명함과 동시에 문방사보는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거나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로 역할을 하였다.

越竹萬杵如金版,	월지방 대나무를 만 번 두드리자 금반과 같아지니,
安用杭油與池繭.	어찌 杭州의 油紙와 池州의 繭紙를 사용하겠는가?
高壓巴郡烏絲欄,	巴郡의 烏絲欄 종이를 크게 압도하고,
平欺澤國清華練.	澤國의 清華練 종이를 늘 업신여기네.
老無他物適心目,	늙어 다른 물건에는 눈과 마음이 가질 않고,
天使殘年同筆硯.	하늘은 남은 생을 붓과 벼루와 함께 살아가라 하네.
圖書滿室翰墨香,	그림과 글이 방 안 가득하여 한묵 향이 그윽한데,
劉薛何時眼中見.	劉涇과 薛紹彭은 언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까?

이 시는 <월나라 대나무를 쥘어 만든 竹紙로 學書하며 시를 지어 설소 팽과 유경에게 부치다(誣越竹學書作詩寄薛紹彭劉涇)>라는 제목의 시로, 첫 구에서 ‘越竹(송대의 대표적인 名紙로 오늘날 浙江·江蘇에 해당하는 옛 越 지역에서 나는 대나무로 만든 竹紙)’을 아름다운 쟁반에 비유하며, 竹紙가 杭州의 油紙와 池州(오늘날의 안휘성 지주시)의 繭紙(누에고치로 만든 종이)보다 월등하다고 하거나, 그 뛰어난 정도를 巴郡의 烏絲⁴⁴⁾와 澤國의

42)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第55輯, 2010.6), 196쪽 참조.

43) 대표적인 예로 宋代 梅堯臣은 문방사보를 읊은 시 25수를 지었고, 또 시에서 ‘文房四寶’라는 용어를 역대 최초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禹在鎬(위의 논문, 2010), 195-201쪽, 참조.

44) 巴郡은 오늘날의 사천과 중경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백색의 生絹으로 만든 비단을 蜀素라 한다. 蜀素에는 검은 격자선(烏絲欄)이 있

練絲⁴⁵)보다 압도적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頸聯에서는 종이와 함께 筆과 硯을 남은 생을 함께 할 동반자로 칭하고 있는데, 마치 문방사보에 대한 애호와 사랑이 자신의 여생에서 하늘의 뜻 내지 필연적 숙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종이와 붓과 벼루라는 소재가 서예의 상징으로 代喻되고 있다.

금반과 같은 가장 질 좋은 竹紙를 얻은 미불이 주위에 놓여진 붓과 벼루를 보고 아끼고 사랑하니, 붓과 벼루는 글씨와 그림이 되어 자신의 주위에 머무르고, 궁극적으로 竹紙에 學書한 글씨와 글을 함께 논할 친구 劉涇(1043~1100)과 설소팽⁴⁶)이 곁에 없어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직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古人의 글씨를 臨摹하고 고인의 글씨를 사방에 펼쳐 놓고 觀書하며 이를 유경이나 설소팽과 같이 서예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까운 이들과 교류하는 일련의 學書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볼 수 없는 두 친구와의 정겨웠던 과거를 늙은 미불이 회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 등장하는 종이, 붓,

는 것이 특징이므로, 여기서는 烏絲欄紙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작품은 오사란지에 필사한 미불의 대표적인 行書 작품, 71행 556자의 〈蜀素帖〉이다.



45) 澤國은 오늘날 절강성 台州市와 溫嶺市에 속하며, 맑고 화려한(淸華) 회고 광택나는 연사(練絲)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귀한 비단 내지 종이를 말한다.

46) 薛紹彭(生歿年 미상)은 미불과의 교류가 특히 깊었는데, 미불은 〈설소팽이 보내준 편지에 답하며(答薛紹彭寄書)〉라는 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米薛 또는 薛米라 부르는데, 이는 아우와 형 또는 형과 아우라 부르는 것과 같다. (世言米薛或薛米, 猶言弟兄與兄弟)”라 하여 자신과 설소팽과의 관계가 手足과도 같은 형제와도 같은 친밀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벼루 등 미불의 문방사보에 대한 애정 내지 애호가 자연스럽게 천진난만한 필치로 그의 서예관과 인생관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서예를 사랑하고 고대 법첩과 서사도구에 천착하는 세 친우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⁴⁷⁾

미불에게는 文房四寶인 지필연묵을 차례로 읊은 〈붓(筆)〉, 〈먹(墨)〉, 〈종이(紙)〉, 〈벼루(硯)〉란 시 4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벼루(硯)〉라는 시 한 수만을 보기로 한다.

金井寒生一水池,	벼루에 담긴 금정수 저수지 물처럼 차가워지고,
讀書窗紙照螢飛。	글 읽는 창호지에 반딧불 비쳐 날아다니네.
悲歡窮泰尋常共,	슬픔과 기쁨, 곤궁함과 편안함은 항상 함께 하니,
擲破還須匣取歸。	깨뜨려 버려도 硯匣은 다시 가져올 수밖에.

첫째 둘째 구에서 여름밤, 글방 아래 창호지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비추이고 옆에는 벼루(金井)⁴⁸⁾에 담긴 물이 놓여 있는 시공간 속에서 이를 주시하는 작자의 시선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셋째 구에서는 상념에 젖어 슬픔과 기쁨, 곤궁함과 편안함이라는 상반된 감정의 공존을 통해 인생관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구에서는 이를 초탈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결국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표명하고 있다. 시제가 벼루이지만 벼루를 직접적으로 읊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격한 감정의 기복 없이 硯匣으로 비유되는 서예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미불의 순수한 예술성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깨뜨려버려야 할 대상이 인생의 悲歡窮泰인지, 아

47) 미불은 〈유경의 편지에 답하며(答劉涇書)〉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람들이 미불, 설소평, 유경을 함께 칭하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네.(不怕人稱米薛劉)”라고 읊어 세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48) 金井은 난간을 아름답게 조각하여 꾸민 우물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벼루의 패인 부분을 의미한다. 杜甫의 〈특진 여양왕에게 바치는 22운(贈特進汝陽王二十二韻)〉이란 시에 “벼루에는 금정수가 차갑고, 차마에는 옥항아리의 얼음빛이 움직였습니다.(硯寒金井水, 簞動玉壺冰.)”라는 구가 있다. 《두보 초기시 역해》(이영주 외 역, 서울, 1999.1), 163쪽 참조.

니면 하나의 유희에 불과한 일생토록 애호했던 서예인지 모호하지만, 여기서는 벼루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연갑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미불 자신의 서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불은 문방사보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서예로 대표되는 예술적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문방사보를 읊은 시에서는 대체로 작법상의 세밀함은 보이지 않고 직설적이고 평이한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문방사보의 외적 특징인 질, 형태, 우열 등에 대한 묘사도 곁들이고 있어, 미불의 예술적 취향을 엿볼 수 있다.

V. 結論

본고에서는 서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米芾의 시를 書藝詩로 분류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미불의 시 가운데 서예시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과 범주를 정하고, 추출한 이 시들을 주제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서 서예와 관련한 미불의 서론과 서예관 등을 살펴보았다. 현재 미불의 시는 250여수 정도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39題 42首 정도였다. 이들 미불의 서예시 42수를 주제와 내용에 따라, 意趣를 중시한 尚意書藝와 學書 방법, 서예가와 서첩 등에 관한 품평 중 二王에 대한 존숭과 崇晉卑唐의 서예관, 그리고 서사도구인 문방사보에 대한 애착과 사랑 등 크게 세 소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불의 서예관을 분석하기에 앞서 서예를 사랑하는 타고난 성정으로 인해 평생 광적으로 서예를 애호했던, 서예시에 투영된 미불의 서예 인생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미불은 자신의 서예시에서 서예에 대한 애호를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예로 점철된 자신의 서예 인생을 투영하면서 서예에 대한 인생관 또한 내비치고 있다. 시에서는 솔직하고 평이한 문체로 意趣를 중시한

尚意書藝와 二王에 대한 존숭으로 대변되는 崇晉卑唐의 서예관, 그리고 서사도구인 문방사보에 대한 애착 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의 작법에 있어 특기할만한 점은 보이지 않으나 주목을 끄는 점은 典故의 사용이 드물고 자유로운 성정에 기반한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서예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욱설에 가까운 일상어와 비난어까지 사용함으로 인해 시적인 면에서는 표현이 晦澁한 인상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글이 거침이 없고 首尾가 일관한다고 할 수 있다. 미불은 서예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하여 古法을 철저하게 습득한 후에 옛 것을 변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삼는 대담한 創新을 한 인물로, 그의 성정과 개성이 담긴 독특한 서풍을 확립하였는데, 이러한 면모 역시 서예사에서 상당 부분 표출되었다고 하겠다. 그의 서예와 시적 표현 및 수많은 기이한 일화들은 세상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고 때로는 당시와 후대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작품 속에서 표현된 眞趣와 功名을 쫓는 모순적 행위는 후대인으로서 그의 인간적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郭魯鳳 選註, 《中國歷代書論》, 서울: 東文選, 2000.7
- 로타 레더로제, 정현숙 옮김, 《미불과 중국 서예의 고전》, 서울: 미술문화, 2013.
- 문영오, 《中國名筆家論談》,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2018.1.
- 우재호,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20.
- 이영주 외, 《두보 초기시 역해》, 서울: 솔출판사, 1999.
- 이치수, 《송대시학》, 서울: 역락, 2020.
- 강중래, 《米芾의 書藝와 書論에 나타난 美意識 研究》, 대전대학교 박사학

- 위논문, 2016.
- 곽지은, 〈米芾 書藝의 意趣美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金善子, 〈米芾의 書藝觀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세경, 〈米芾의 〈海嶽名言〉과 그 書藝的 體現〉,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신영주, 〈조선의 문헌 속에 그려진 米芾의 몇 가지 형상에 관한 소고〉, 《漢文古典研究》 제36집, 2018.
- 우재호,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제55집, 2010.6.
- 우재호,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제69집, 2015.8.
- 우재호,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제71집, 2016.4.
- 우재호, 〈宋代 書藝詩 試探 -唐代 書藝詩와의 비교를 겸하여〉,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제88집, 2021.12.
- 이성배, 〈北宋時代의 書論과 書作 研究〉,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 《全宋詩》(72冊 중) 18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 《二十五史》(全12冊) 중 7-8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 曹寶麟, 《中國書法史》,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9.
- 黃正雨·王心裁, 《米芾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2.
-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校注》,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11.8.
- 王伯敏·任道斌·胡小偉, 《書學集成(漢-宋)》, 石家莊: 河北美術出版社, 2002.6.
- 王宏生, 《北宋書學文獻考論》, 上海: 上海三聯出版社, 2008.
- 沃興華, 《米芾書法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楊加深, 《北宋書法教育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7.

-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沈陽: 遼寧美術出版社, 1993.
張毅·于廣杰, 《宋元論書詩全篇》,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17.
蔡顯良, 《宋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王閣祥, 《米芾論書詩及其書學思想》, 《大學書法》, 2020.2.
由興波, 《詩法與書法》,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Abstract>

Among the poems of Mi Fu, who excelled in both poetry and calligraphy, 42 poems on 39 topics were selected as poems on calligraphy. These poems expressed views on previous calligraphers and calligraphy works, and Mi Fu's 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was analyzed in this paper. The selected poem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referentially, the calligraphy life of the Mi Fu, who loved calligraphy enthusiastically throughout his lif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eparate chapters.

Mi Fu not only shows his love for calligraphy in an honest and plain style in his poems on calligraphy but also expresses his view of life and calligraphy. His poetry is not remarkable about the composition of poetry, but what attracts attention is that the use of allusion is rare and he revealed his view of calligraphy with honest and straightforward expressions based on his nature. In calligraphy, he is a bold creative person who learned ancient calligraphy through a traditional style of calligraphy and then changes the old and becomes his own, establishing a style of calligraphy with his character and personality, this aspect is also revealed to some extent in calligraphy poetry.

Key Words : 米芾(Mi Fu), 書藝詩(Poems on Calligraphy), 書藝觀(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書藝家(Calligrapher), 尚意(To worship the meaning and interest), 二王(Two Wangs), 文房四寶(the Four Friends of the Study)

